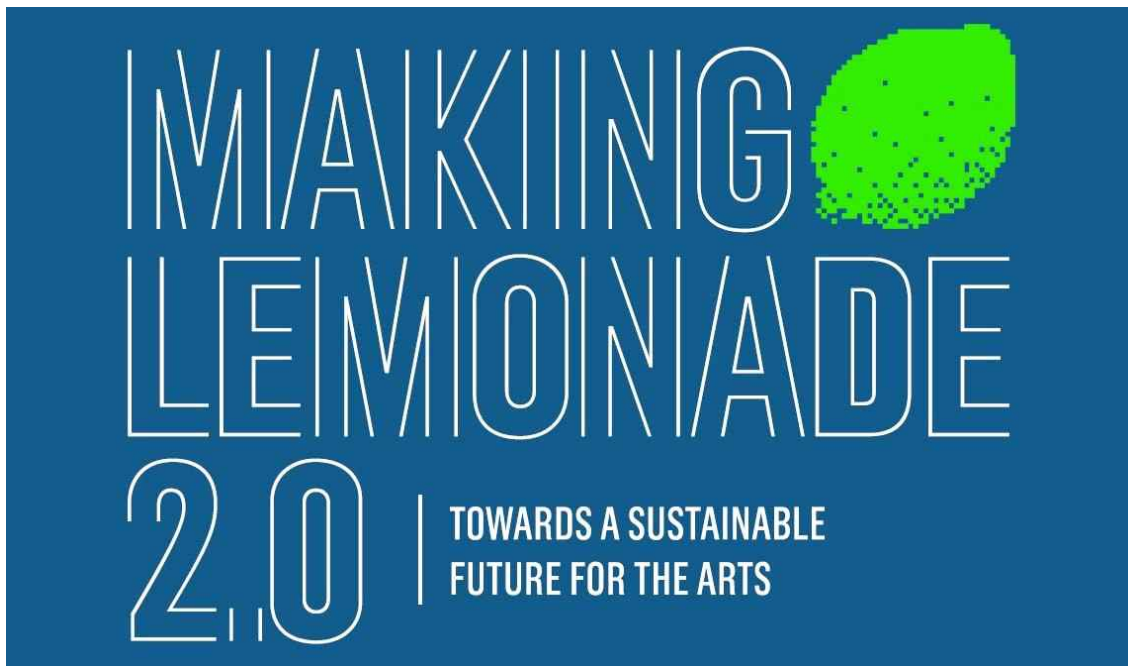


# 보 도 자 료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쪽수	총 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문화예술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메이킹 레모네이드 2.0’**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프랑스·독일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예술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콘퍼런스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주한독일문화원, 아트센터 나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해 논하는 온·오프라인 콘퍼런스 <메이킹 레모네이드 2.0: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예술 (Making Lemonade 2.0: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for the

Arts)>을 개최한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부터 4월 21일 목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한국, 프랑스, 독일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예술가가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에 관하여 논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 의견 등을 나눌 예정이다.

○ '메이킹 레모네이드 2.0'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새롭고 파급력 있는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와 창작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문화계가 토론과 성찰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임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이 예술 문화계의 지속 가능성 실현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 행사명 '메이킹 레모네이드'는 삶이 시련(레몬)을 주거든 그것으로 기회(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영어 표현에서 영감을 얻어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되어 4,500명 이상의 온라인 참가자를 모았던 <메이킹 레모네이드: 예술의 디지털 미래를 향해>의 후속 콘퍼런스다. 올해 콘퍼런스는 네 번의 대담, 아트 퍼포먼스, 그리고 한국·독일·프랑스 25명의 연사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콘퍼런스는 예술, 문화, 지속 가능성, 기술이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행사는 주한독일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시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고 (선착순 마감), 행사의 온라인 시청은 아트센터 나비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다.

■ 붙임 1. 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 소개

붙임 2. <Making Lemonade 2.0> 관련 자료 및 URL

# [붙임 1] 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 소개

## ○ 행사 개요

- 행사명 : 메이킹 레모네이드 2.0: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예술
- 일 시 : 2022.04.19. 화요일 - 2022.04.21. 목요일 (총 3일)
- 장 소 : (오프라인)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132 주한독일문화원 강당  
<https://www.goethe.de/ins/kr/en/kul/kuf/aml.html>  
 (온라인) 아트센터 나비 YouTube 채널  
[www.youtube.com/nabiart](http://www.youtube.com/nabiart)
- 주 최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주한독일문화원, 아트센터 나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일정 및 프로그램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p>18:00 - 18:10</p> <p><b>인사말</b> <i>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예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li> <li>▪ 카롤라 렌츠, 괴테 인스티투트 총재</li> <li>▪ 에바 엔귀엔 빈,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 원장, 프랑스 해외문화대사</li> <li>▪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li> </ul>
<p>18:10 - 18:40</p> <p><b>키노트 대담</b> <i>기후 변화의 기술과 예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재식 - "기부 변화의 기술과 예술" (Technology of Climate Change and Art) 송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소설가</li> </ul> <p>사회: 홍경한, 미술평론가</p>
<p>18:45 - 19:00</p> <p><b>아티스트 토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아영 - "'수리술 수중 연구소'와 사변적 지구공학" (Surisol Underwater Lab and Speculative Geoengineering)</li> </ul>
<p>19:00 - 19:55</p> <p><b>쇼케이스 #1:</b> <i>아티스트 사례</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앤리(Bang &amp; Lee), 아티스트 콜렉티브 - "개더링 모스와 액트제로(Gathering Moss and ActZero)"</li> <li>▪ 조아니 르멜시에, 시각예술가 - "디지털 아트, NFT, 그리고 지속가능성(Digital Arts, NFTs and Sustainability)"</li> <li>▪ 슈테판 카에기, 리미니 프로토콜 소속 아티스트 - "원격으로 제어되는 관객과 방문객의 부재(Remote Controlled Audiences and Absent Guests)"</li> <li>▪ 김안나, 멀티미디어 예술가,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보이지 않는 도시들: 오피   모 (Invisible Cities: OPIM/오피   모)"</li> </ul>

	<p>사회: 이정우, 널 위한 문화예술(CultureArt4u) 에디터</p>
<p>19:55 – 20:10 <b>아티스트 퍼포먼스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테인 페로 - "실비아(Sylvia)"</li> </ul>
<p><b>2021년 4월 20일, 수요일</b></p>	
<p>18:00 – 18:30 <b>키노트 대담</b> <i>모범 사례: 미학과 지속 가능성 기금을 향해!</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드리엔네 필러 - "모범사례: 미학과 지속 가능성 기금을 향해!" (Examples to Follow! Towards a Fund in Aesthetics and Sustainability) 홍보대사, 큐레이터, 미학과 지속 가능성 기금의 발기인 및 예술감독</li> </ul> <p>사회: 홍경한, 미술평론가</p>
<p>18:35 – 19:10 <b>패널 토론</b> <i>예술을 위한 행동주의(artivism): 기후 행동에서의 예술의 역할</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근혜, 아르코미술관 관장</li> <li>다니엘 카펠리앙, 국제 커미셔너, 통영국제트리엔날레 큐레이터</li> </ul> <p>사회: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p>
<p>19:15 – 19:30 <b>아티스트 퍼포먼스 #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찬일(임의그룹) - "이 땅 위에서는 양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둔다(The Sheep Are Allowed to Roam Freely on This Land)"</li> </ul>
<p>19:30 – 19:55 <b>쇼케이스 #2</b> <i>문화기관 및 시민단체 사례</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브 롱바르, 아비뇽 페스티벌 행정팀장 -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Sustainable Strategy for Sustainable Performing Arts)"</li> <li>이혜원, 기후시민 3.5 큐레이터, 대전대학교 교수, - "기후 시민 3.5: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기후 행동 캠페인(Climate Citizens 3.5: A Public Art Project/Climate Campaign)"</li> </ul> <p>사회: 이정우, 널 위한 문화예술(CultureArt4u) 에디터</p>

**2021년 4월 21일 목요일**

<p>18:00 – 18:30</p> <p><b>키노트 대담</b> <b>예술의 탄소발자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엘 발랑시 - “예술의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of the Arts) The Shift Project 문화파트장</li> </ul> <p>사회: 홍경한, 미술평론가</p>
<p>18:35 – 19:15</p> <p><b>쇼케이스 #3</b> <b>혁신적인 해결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리히 하이더, Ochestras of Changes Germany 언론 대변인,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른 부수석 연주자 - “기후 보호? 그것은 우리에게 음악과 같다! (Climate Protection? That’s Music to our Ears!)”</li> <li>루이잔 호와, La Réserve des Arts France 공동대표 - “재료의 재사용, 창의적인 프로세스의 재창조(Re-using Materials, Re-inventing Creative Processes)”</li> <li>장성은, 요크(YOLK) 대표 -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One Village Together for One Solar Cow)”</li> </ul> <p>사회: 이정우, 널 위한 문화예술(CultureArt4u) 에디터</p>
<p>19:15 – 19:45</p> <p><b>아티스트 퍼포먼스 #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호준 - “미역 그래피티(Miyeok Graffiti)”</li> </ul>

○ 공동주최 기관



프랑스와 한국은 상호 예찬, 매료, 존경심에 전념하며 바로 여기에 양국 간 우호의 강점이 존재한다. 양국을 잇는 이 독특한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의 임무이다. 양국은 문화에 대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며, 이러한 공동 비전이 국민을 서로 가까워지게 하고, 서로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는 프랑스 대사관을 대신하여 연구와 대학과의 과학 교류, 예술 문화의 영향력 확대와 프랑스어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문화창조 산업은 양국 문화의 활력이며, 이를 통해 공동 추

진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https://kr.ambafrance-culture.org/ko/>



괴테 인스티투트(독일문화원)는 전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 기관으로, 해외에서 독일어 강습 및 시험 주관 기관으로서 힘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문화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968년 설립된 **주한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투트 코리아)**은 열린 사회와 생기 넘치는 독일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국내외 파트너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괴테 인스티투트의 전문 지식과 연계하며 지속적인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투트는 세계화의 문화 정책적인 요청에 부응하며 사회 현안을 여러 가지 문화적 컨텍스트 안에서 다루고,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http://www.goethe.de/korea>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인 대한민국 최초 미디어 아트 센터이자 디지털 아트 전문 기관으로 국제적인 디지털 예술 및 문화를 다뤄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문화적 욕구를 중요한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개자로서 현대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접목한 예술 창작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발전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해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의 가능성과 예술적 감성을 결합하여 개인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힘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www.nabi.or.kr](http://www.nabi.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arko.or.kr](http://www.arko.or.kr)

## ○ 후원



독일-프랑스 문화기금은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조약인 엘리제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우호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03년 1월 22일에 만들어졌

다. 문화 분야에서의 프랑스와 독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이 문화기금은 제3국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이 기금을 통해 프랑스 및 독일의 현지 문화기관은 각국 문화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 협력을 촉진해 왔다. 그 대상은 시각예술, 공연, 디자인, 패션, 건축, 영화, 뉴 미디어, 문학, 대중 토론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며 이와 같은 활동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홍보 담당자 (전화. 02-2021-2847 이메일. [Eunkyul.Park@goethe.de](mailto:Eunkyul.Park@goethe.de)) 혹은  
프로젝트 담당자 (전화. 02-2021-2016 이메일. [Woojung.Choi@goethe.de](mailto:Woojung.Choi@goethe.d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